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 9월 개장 박차

군, 47억원 들여 동악산 자락 신기리 청계동 계곡 일원 조성
울창한 소나무 숲 일품...명상·치유시설·물치유 지구로 구성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이 9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은 산림청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곡성군 동악산(해발 735m) 자락의 신기리 청계동 계곡 일원에 조성했다. 기본공사는 완료된 상태며, 진입로와 시설 등에 대한 최종 정비를 통해 오는 9월 개장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2.9㎢·290ha)의 3분의 1인 92ha에 달하는 솔바람 치유의 숲에는 울창한 소나무들이 뿔뿔하게 들어서 한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또 숲 안에 있는 청계동 계곡에는 동악산 북쪽으로부터 수많은 골짜기들이 합류해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로를 씻어내기에 제격이다.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의장병이었던 청계 양대박 장군의 의병 활동 본거지라는

유서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림청은 이처럼 자연과 역사가 살아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솔바람 치유의 숲을 조성하게 됐다. 솔바람 치유의 숲은 크게 명상, 치유시설, 물치유 지구로 구성돼 있다. 명상지구에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바람길, 장수전망대, 솔향기쉼터, 풍욕장 등이 있다. 치유시설지구는 운영관리동과 체험동이, 물 치유지구는 다도원(茶道園), 돌담치유장, 전망대, 참꽃쉼터, 음이온쉼터 등을 갖추고 청계동 계곡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 활동을 할 수 있다. 솔바람 치유의 숲에서는 출생기부터 회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 ‘솔바람 치유의 숲’이 9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단장을 마친 진입로. <곡성군 제공>

곡성군 관계자는 “솔바람 치유의 숲이 개장하면 청계동이 여름철 피서지에서 4계절 사람들이 찾는 탐바꿈될 것”이라며 “특히 치유의 숲과 청계동 계곡, 기차마을, 도림사, 압록유원지 등의 연계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곡성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결혼이주여성 40여명 대상
곡성군, 폭력예방교육 실시

곡성군이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결혼이주여성 4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성폭력·가정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에서 살기’라는 주제로 개최했으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위해 다문화 감수성을 기초로 사례 중심과 신고요령 등을 집중 교육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학습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관광구례’ 홍보하는 청소차...차량 4개면에 지리산 정원 등 그려

구례군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청소차량 옆면에 지리산정원과 지조봉 짙라인, 모노레일, 패러글라이딩 모습 등 관광구례를 담은 그림으로 홍보에 나섰다 16일 밝혔다. 청소차의 변신은 광의면 청소차량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쓰레기 수거 차량의 안 좋은 이미지 변신과 전남 유일의 관광특구 구례홍보를 위해 산동면에 거주하는 이강현씨가 솜씨를 발휘했다.〈사진〉 차량 4면에는 지리산정원의 아름다움과 지조봉 정상부근에 설치되고 있는 짙라인과 모노레일,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 레포츠 랜드의 활기찬 모습과 관광지 이미지를 담았다. 전면에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슬로건을, 후면에는 구례군 캐릭터인 산수유와



광의면 마크를 넣는 등 4면에 관광구례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차량 우측에는 지리산정원 전경을 주제로 야생화테마랜드, 숲속수목가옥, 지리산 자생식물원, 구례생태숲, 짙라인, 모노레

일, 패러글라이딩활공장 풍경화를, 좌측에는 활기 넘치는 광의면을 주제로 짙라인, 모노레일, 패러글라이딩 비행 모습의 풍경화가 그려져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군 수영장·해수탕 복합건물 ‘제동’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서 재검토 요구...내년 초 착공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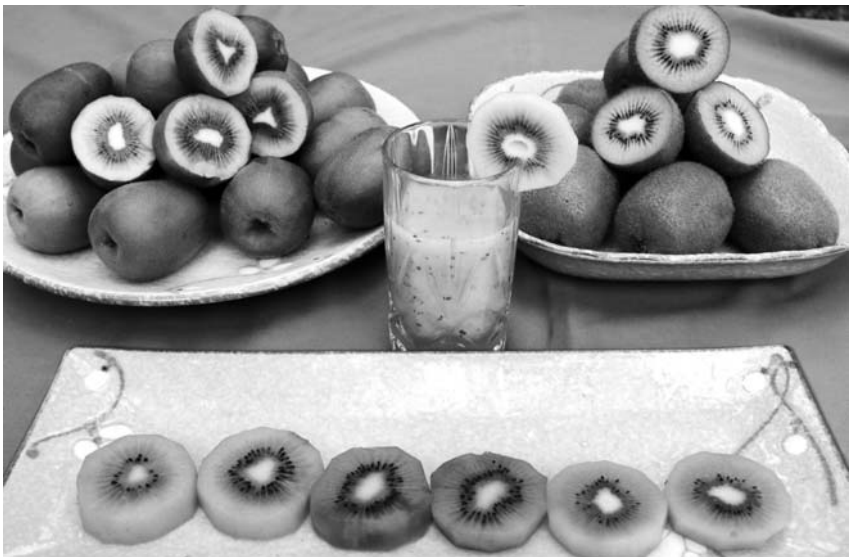
고흥군이 오는 9월 실내수영장과 해수탕을 갖춘 복합건물을 착공하려 했으나 전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고흥군이 녹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수영장·해수탕 조성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수영장은 지역민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해수탕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흥군은 오는 9월 수영장·해수탕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전면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수영장은 원래대로 6레인 규모로 추진하되 해수탕은 찜질방 등 일부 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착공하려던 수영장·해수탕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은 도양읍 소록대교 인근에 있는 옛 녹동휴게소 인접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43㎡ 규모의 실내수영장(6레인)과 해수탕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건립 예산은 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장은 국비를 30%가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영장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면 정부로부터 국비를 10%가량 더 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하반기 투자심사에 대비해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며 “사업을 위한 준비는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보성군, 명품 키위 육성 프로젝트 ‘시동’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 개발·홍보 활동 등 세계화 속도

보성군이 명품 보성키위(사진)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보성군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보성 키위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성군의 명품 키위 생산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군은 농촌진흥청과 보성 키위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해 2년 동안 10억여원을 투자해 최고품질의 키위단지를 조성했다. 또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위 결실 안정을 위해 농가에 꽃가루 활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 재배환경을 조성했다. 군은 국내 최대 키위 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성키위 브랜드 홍보와 더불어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 SNS 홍보단을 자체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성군의 키위 재배 면적은 2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시설 현대화와 농업인 전문교

육 추진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10월에는 국제 농업 박람회에 참가해 보성키위의 날 행사를 운영해 대한민국을 넘어 보성키위의 세계화의 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최고품질 브랜드 개발과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해 보성 키위 농업의 저변을 넓히고, 법인 단일화로 최고품질의 보성키위를 육성하게 된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성 대표 특산물인 키위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품질유지와 소비자 맞춤형 브랜드 개발을 통해 외국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품 보성 키위는 10월 중순부터 맛볼 수 있다. 키위는 미국 식품영양학회 선정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비타민C의 경우 오렌지의 2배, 사과 17배를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작용, 변비 해소, 임산부 빈혈 예방 등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세월굴

“맞춤형 치안 대책으로 노인 안전 최선”
오인구 고흥경찰서장

“안전한 고흥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제68대 고흥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오인구(54)총경은 “고흥은 전국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노인 실종, 노인학대, 교통사고 등이 빈번한 만큼 고령층 맞춤형 치안 대책을 펼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서장은 또 “한려수도의 중심, 나로호의 고향 고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을 보호하고 불법 앞에서 당당하게 법이

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인 오서장은 제주 세화고와 서울 사이버대 법무 행정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제주청경무계장, 정보3계장, 생활안전과장·정보과장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